

# 그리운 그대를 위해...

- 위령성월 -

## 학습목표

1.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2. 위령성월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운다.

- ▶ 준비물 :
- ▶ 시작기도 : 주님 맞들이기

## 바라보기 (20분)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언제, 어떤 기도였나요?

### 작업

#### 찾아라, 죽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

1. 다음 기도문 중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문을 찾아본다.
2. 죽은 영혼들을 위한 부분을 적어본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	반성기도	십계명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경
고백기도	통회기도	삼덕송	봉헌기도	삼종기도	부활 삼종기도
식사 후 기도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성모의 노래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성모 찬송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시편 129	예수 성심 호칭 기도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	
성 요셉 호칭 기도	성인 호칭 기도	성모 호칭 기도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구원송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죽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에서 찾은 것처럼 식사 후 기도, 묵주기도 중 구원송 등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죽음으로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로 매우 슬퍼하며 참담함까지 느껴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드리는 기도 속에 '죽은 이들' 또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일상에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안식을 얻기를 바라고 있고, 특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식사 후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안식을 바라고 있을까요?

## 알아보기 (20분)

1.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위령성월은 어떤 달인가요?

기원전 180년에서 161년 사이의 이야기가 쓰여있는 마카베오기 하권을 살펴보면, 전쟁 중에 죽은 전사자들을 위해 기도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전사자들이 저지른 죄를 완전히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탄원하며 간청하였고 속죄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 모금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사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든 이들에게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여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것(2마카 12,42~45)이 바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죄의 정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죽은 영혼이 정화가 되어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여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연옥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신자들이 연옥 영혼의 고통을 이해하고, 버림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의 통공이란, 교회를 이루는 세 구성원인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천국에서 살고 있는 성인들, 죄의 정화를 위해 연옥에 머무르는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을 떠나 하느님 자녀로서 긴밀한 연대를 맺고 하느님 안에서 일치와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령성월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 볼 수 있게 합니다. 11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면서 전례력의 연중 마지막 시기이고, 미사 중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위령성월은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달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당장은 와닿지 않기에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맞이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하느님께 갈 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성찰해볼 수 있습니다.

위령성월을 지내며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것, 지금은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 꽃가르침

“주저하지 말고, 죽은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바칩시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 즉,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거룩하게 살다간 성인들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지 못하거나 사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여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죄의 정화를 위해 연옥 상태가 됩니다. 연옥이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밝은 사랑의 모습을 만나기에 앞서 정화가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연옥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단식과 기도, 선행 그리고 미사의 성체성사 안에서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루카 22,62) 이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정화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신의 악한 행실이나 사랑을 담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후회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정화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뵈 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sup>1)</sup>

### \* 연옥이란?

죄를 지은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잠벌이라는 것은 남게 됩니다. 잠벌이란 잠시 받는 벌로서 보속을 통해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보속이 있고, 그 보속을 치르는 상태가 바로 연옥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하느님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 또한 연옥입니다.<sup>2)</sup>

(연옥에 관한 교리는 1336년 교황 베네딕토 12세에 의해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 살아가기 (25분)

위령 성월동안 연옥 영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작업

주님의 품에서 별처럼 반짝 거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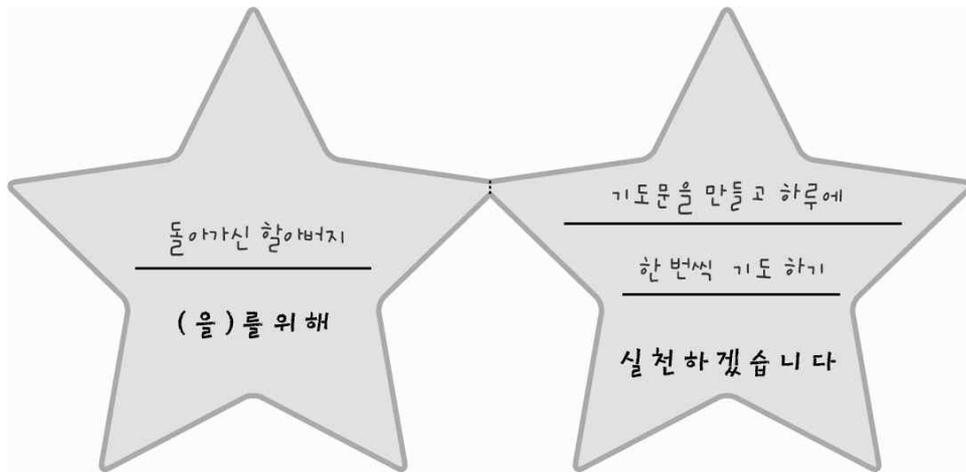
1. 연옥에 머물러 있는 영혼(특정인이 아니어도 가능) 중 기도해 드리고 싶은 연옥 영혼을 생각해 본다.
2. 별 모양 카드 왼편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적는다.

1) YOUCAT 159항

2) 가톨릭 대사전

3. 기도 또는 실천 사항도 오른편에 함께 써 넣는다.
4. 위령성월 동안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 실천사항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한다.

예



하느님께서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우리 공동체 모두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구원과 연옥 영혼의 죄의 정화를 위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와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봅시다.

▶ 마침기도 : 위령성월 기도문(시편 129)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br/>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li> <li>●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li> <li>○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br/>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li> <li>●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br/>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li> <li>○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br/>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li> <li>●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br/>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li> <li>○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br/>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li> <li>●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br/>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li> <li>○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br/>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十 기도합시다.<br/>사람을 창조하시고<br/>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br/>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br/>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br/>그들이 바라던<br/>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br/>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li> <li>◎ 아멘.</li> <li>十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li> <li>◎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주소서.</li> <li>十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br/>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